

2001. 7. 7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중앙고속도로의제천시구간 IC 명칭에 관한 건의문

위의 건의문을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임 1. 의원서명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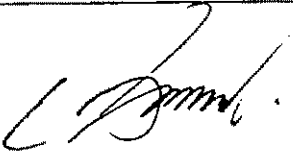

.2. 중앙고속도로의제천시구간 IC 명칭에 관한 건의문 1 부

발의자 : 최상귀 의원  
외 4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중앙고속도로의 제천시 구간  
IC명칭에 관한 건의문(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최 상 기		
이 종 호		
최영희	최영희	/
(美) 景煥		
민 정 완		

## 중앙고속도로의 제천시구간 IC명칭에 관한 건의문(안)

의안번호	108
------	-----

발의연월일 : 2001. 7. 27  
발의자 : 최상귀의원의외 2인

### 1. 제안이유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앙고속도로의 제천구간인 춘천~제천~대구간이 2001년12월에 개통될 예정인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구간 IC 명칭에 관하여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건의사항(2가지)

- 제천~원주구간이 1995. 8월부터 개통되면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위치한 IC 명칭을 "서제천 IC"로 사용하여 왔으나, 제천시내에서 약 8km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연결도로가 4차선인 점등 제천시내로의 접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제천 IC"를 "제천 IC"로 변경하여 줄 것.
- 금년 12월에 개통예정인 구간에 위치한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에 설치되는 IC명칭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제천 IC"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의 IC는 청풍호반 일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인 지점이므로 "남제천 IC"를 "청풍호반IC"로 결정하여 주실 것.

2001. 7. 27

제72회임시회제4차본회의

## 중앙고속도로의 제천시구간 IC명칭에 관한 건의문(안)

제 천 시 의 회

---

## 중앙고속도로의제천시구간 IC명칭에관한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

우리 제천시는 일찍이 중앙·충북·태백선이 교차하는 철도의 요충지로서 지역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왔으나,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0%이상을 생산하는 5대 시멘트공장이 우리시 인근에 위치하여 각종산업물자 운송의 필요성과 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육로교통량으로 인해 육로교통시설의 고속화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중앙고속도로건설계획을 확정하고 1989년에 착공하여 제천~원주구간은 1995년부터 개통되었으며 2001년12월까지의 춘천~제천~대구간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토의 대동맥인 도로망의 확충에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리15만 제천시민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에 즈음하여 우리시 지역에 설치되는 IC명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의 지역여건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면적은 약 882km<sup>2</sup>인데 1985년에 건설된 충주댐으로 인해 약49km<sup>2</sup>가 수몰되어 농업등 생산산업기반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산세가 아름다운 금수산과 국립공원인 월악산 일원이 어우러져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청풍호반 일대에 대대적인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살펴보면 옛 남한강 상류의 많은 문화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조성한 8만5천평 규모의 청풍문화재단지가 있으며, 넓은 청풍호반에 동양최대인 높이160m까지 치솟는 수경분수가 설치 운영중이고, KBS드라마 태조왕건의 촬영장중 옛 개성 예성강포구를 재현한 태조왕건 촬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숙박휴식시설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건립한 객실280호 규모의 청풍리조트가 운영 중이고, 콘도61동270실 규모의 E.S리조트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 천시는 계속해서 SBS의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중이며, 스포츠·레저 시설로 대형번지점프장과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을 시공중에 있으며, 수상항공사업과 수상레저시설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기암괴석 으로 이루어진 금월봉을 중심으로한 금월봉 관광지를 비롯한 4개소의 관광지개발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풍명월의 본향인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수려한 산수 경관과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중앙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구간 IC 명칭에 관하여 15만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제천시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부디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 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원주구간이 1995. 8월부터 개통되면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위치한 IC 명칭을 “서제천 IC”로 사용하여 왔으나, 제천시내에서 약 8km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연결도로가 4차선인 점등 제천시내로의 접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제천 IC”를 “제천 IC”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금년 12월에 개통예정인 구간에 위치한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에 설치되는 IC명칭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남제천 IC”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의 IC는 청풍호반 일원으로 진입하는 입구인 지점이므로 “남제천 IC”를 “청풍호반IC”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1년 7월 27 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